

土種 홍화씨
합양산 土種 홍화씨기 왜 좋은가?
● 지리산자락 합양산 재배의 적지
● 합양산 10여년간의 재배를 통한
원조곡 품내
● 끊임없는 연구를 통한 우수 품종 생산

興國農産
◎ 전국 (080)064-1300
◎ 서울본부 (080)070-1300

“차마시는 ‘나’ 누구인가”

산문박의 禪 茶人 최규용 翁

“자, 어서 와 차나 마시게”
찰을 끓이는 소리를 내며 비 내리던 늦봄, 분홍색 흰색 작약이 흐드러지게 핀 ‘금당다우(錦堂茶寓)’의 나무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금당(錦堂) 최규용(97)이 화두를 던지듯 담담하게 차를 건넨다.
백수(白壽)를 눈앞에 두었다는 것을 조금도 느낄 수 없도록 꽃향기와 기쁨이 느껴지는 금당선생, 2백년의 세월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고가 ‘금당다우’는 선생과 조화를 이루며 한 몸처럼 잘 어울린다. 오랜 연륜에서 풍어나는 고졸한 향기와 품격, 여유로움이 그대로 다가온다.
‘담대의 다성’ 살아있는 다선(茶仙)이라 불리우는 금당선생은 찾아오는 손님에게 차를 권하는 일이 일상사처럼 됐다. 그러면서 “천천히, 살그머니, 조용히, 환상하면서, 그 향기를 맡으셔서” 차를 마시면 한가한 정자에 자연히 이르게 되고 차 마시는 경지를 자연스럽게 일러준다.
“차마시는 일이 곧 참선이에요. 차는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에 여유를 줍니다. 차를 제대로 마실 줄 아는 사람은 그 신묘한 세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전방에서는 출음을 적게 하려고 생차임을 씹어먹는 게 그것은 차의 깊은 향과 맛이 내면의 충만함과 하나되기 때문이지요.”
금당선생의 차 인연은 아득히 멀리 십대 거슬러 올라가지만 진정한 차맛을 알게 된 것은 1960년대 초 해인사에서 장경각 보수공사를 할 때였다. 고건축에 안목이 뛰어났던 그는 6년간 절에서 머물면서 장경각을 보수하고 하안거 동안 겨울 스님들과 같이 지냈다. 흔히들 다선일여(茶禪一如) 혹은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이 33경적인 수사만은 아니라는 걸 그 시절 알 때 정도로 차에 푹 빠졌다.
금당선생은 차문화가 이만쯤이나 우리나라에서 명맥을 이어온 것도 선방에 차문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신라시대부터 차를 마셨으나 조선시대의 차는 일부 관나 선방에만 있었다. 차에 부파하는 세급이 너무 높아 민가에서 차를 외면하자 우리나라 차문화가 끊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선방에 차가 있었고 차담을 나누는 수좌들이 있어 지금까지 차향이 선향과 함께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 금당선생이 절집안 일을 시작하면 빼놓지 않는 이가 바로 경봉 스님이다. 차를 즐기기로 유명했던 경봉 스님이 주석했던 통도사 극락암에는 차를 즐기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는데 스님은 차를 대접하지 않고 오는 사람 누구에게나 차를 대접했다. 스님이 열반했을 때는 은병이, 명인, 곱추를 비롯 주위의 사람들이

이 다 모여 추모했다고 회고한다. 매우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다비를 하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두 주일을 계속 내렸다. 그 비로 일대의 더러움이 일시에 씻겨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그 비로 인해 어느덧 자신의 마음까지 씻기워졌음을 알게됐고 이심전심의 경지를 느꼈다. 성철스님도 있을 수 없다. 성철스님은 만날 때마다 다른 말은 없이 “금당다우”라고 묻기만 했는데 그 말만 들어도 마음이 말끔해지곤 할 정도로 법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차로 맺어진 인연은 청담, 일타, 문성, 정현, 석경, 법정 스님 등 당대를 이끄는 대 선지식들에게 자연스럽게 닿아 있다.
금당선생은 다구(茶具)를 연구하여 일본

장경각 보수하다 차맛 알아
경봉·성철스님등 차로 인연
‘정행검덕’ 진정한 차정신

白壽 바라보는 나이에
‘육우다경’ 한글번역 몰두



◇ ‘icked(喫茶).’ 금당 최규용은 만나는 누구에게나 차마시러 오라고 권한다.

이 금당선생의 차세계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중국 조주 선사(趙州)의 ‘icked(喫茶)’에 대한 화답으로 일타, 석정스님, 금당선생 세 사람이 88년 이후 출판 세상 사람들을 향해 던진 화두이기도 하다. 차를 즐기는 사람은 차 한잔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는 이치를 깨닫고 깊은 자문(自問)에 잠긴다. ‘차 마시는 나의 본고슬은 무엇인가’라고.
금당선생은 요즘 차문화의 근간을 이룬 <육우다경(陸羽茶經)>을 우리말로 옮기고 있다. 차나무 모양, 차의 선택, 차의 재료, 다기, 다구, 차달이는 방법, 차의 효능 등이 5

권 6백자에 담겨 있다.
그러나 선생은 차정신이 단 네자로 요약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정행검덕(正行檢德).” 이 정신이야말로 본래면목을 찾을 수 있는 실천행입니다. 바른 행동과 겸손한 생활은 선생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덕목으로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육우다경연구회’를 중심으로 차정신화산운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자신의 본래 면목을 회복하고 인간성을 되찾자는 취지다. 그것이 바로 선생이 주장하는 다선일미의 선차(禪茶 명상차)의 경지이다. 선생에게 차는 자기의 본래성품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이며 그대로 화두였던 셈이다.
“이게 남은 것은 열반에 들어가는 것뿐이 예요. 상무현왕이요 하루갈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이나 걸인이나 똑같이 죽을의 길은 평등하다는 말이죠.”
열일곱에 시집과 선생 곁에서 칠십년 세월을 함께 해온 부인 민숙(85) 할머니도 “내 집인 듯 오세요”라는 말을 잊지 않으며 차맛처럼 푸근하게 손을 꼭 잡는다.
턱을 꺾어 오르지 모습 없는 본래면목을 곱중히 찾다 깨침을 성취했다고 전해오는 척장수 할머니처럼 금당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오늘도 바다가 보이는 한옥, 그 오랜 나무대문을 활짝 열어 놓고 누구에게나 ‘icked(喫茶)’을 외치며 차를 달인다.
천미희 기자(mhcheon@buddhopia.com)

과 우리나라의 도공예까지 채우고 있을 정도로 고미술에도 일가견이 있다. 고미술, 민예품 등에 대한 금당선생의 연구는 65년 8월 10일 서울에서 열린 ‘우리민속공예를 일 본을 비롯 해외에 전파하는 결실을 맺을 장’으로 알려져 있다.
미담이 문을 열고 들어선 재자를 향해 금당선생은 “참선해라” 한마디뿐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젊은이는 방안으로 들어가더니 가 부좌를 틀고 앉는다. 금당선생 역시 흥나는 대로 5분이든 10분이든 정좌하고 앉아 참선에 든다. 굳이 참선하겠다는 생각도 없다. 차를 마실 때도 길을 가다가도 사람과 만나다가도 참선 상태에 들기 일쑤다.
“icked(喫茶).” 금당 선생이 만나는 사람마다 잊지 않고 건네는 말이다. 차맛을 음미하러 오라, 단순히 마신다는 음(飲)자가 아닌 맛본다는 icked(喫)에서



◇ 금당선생의 집 ‘금당다우’는 선생이 회장으로 있는 ‘육우다경연구회’의 활동 본거지이기도 하다.



◇ 금당선생이 집필한 <금당다우> 등 차관련 저서들.



◇ 남궁연씨가 14일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고구려 금동여래좌상. 높이 8.8cm.

국보급 고구려불상 중앙박물관서 본다 원로경제인 남궁연씨 기증

국보급 고구려 불상인 ‘금동여래좌상’을 중앙박물관(관장 정영모)에 기증한 남궁연(84·전 금융통화위원회)은, 14일 오전 불상을 손수 들고 중앙박물관으로 찾아가 기증서를 작성



◇ 정영모 국립박물관장에 기증서를 전달하고 있는 남궁연(왼쪽).

한 남궁연은 “운산 새 국립박물관의 개관을 기념하고, 온 국민이 새 박물관에서 선조의 예성과 불상이 담긴 명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장 아끼는 금동여래좌상을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높이 8.8cm인 이 불상은 현재 남아있는 고구려 것으로는 매우 이른 시기인 6세기경으로 추정되는 작품. 광배는 없지만 불신은 거의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어 그동안 고미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 1979년 일본에서 열렸던 ‘한국미술 2000년’ 전과 1983년 미국과 유럽에서 열렸던 ‘한국미술 5000년’ 전에 출품돼 호평을 받았다.

남궁연이 이 불상을 손에 넣은 건 1946년. 경기도 벽재 토목공사 현장에서 출토된 이 불상을 문화재 전문가에게 소개받아 구입한 것이다. 이때부터 50여년동안 이 불상은 남궁연의 애장품 가운데 하나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영모관장은 “불상의 보존상태가 좋는데다 여태껏 발견된 고구려 불상이 5개뿐이어서 더욱 귀중하다”며 “국보 118호인 고구려 불상 연가칠년명(延壽七年銘) 금동여래입상(539년 제작)과 비견된다”고 설명했다. 박물관은 이 불상을 최상급 유물(국보급)로 분류하고 기증자의 뜻을 기려 곧 일반에게 공개하고 문화재 지정 절차도 밟을 예정이다.

남궁연은 국동해운사장으로 오래 있으면서 60년대 국내 10대 그룹의 하나이던 국동그룹을 이끌었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전신인 경제인협회 부장을 지낸 경제계 원로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opia.com)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사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佛紀 2543年 (己卯年) 부처님 오신날

이름다운 세상 만들기 - 불자가 앞장섭니다.

<p>대한불교조계종 호국참회기도도량</p> <h3>삼각산 도선사</h3> <p>문도회 문장 이 정 천 도선사 회주 이 혜 성 참회원장 박 현 성 주 지 김 광 복</p> <p>대중일동</p> <p>■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 264번지 TEL : 종무소 02)993-3161 ~ 3 / FAX : 02)993-3164</p>	<h3>이화피아노</h3> <p>원장 홍계선</p> <p>■ 강원도 강릉시 포남2동 1068-7 TEL : 0391)651-1315</p>	<h3>삼화사</h3> <p>주지원 행</p> <p>■ 강원도 동해시 삼화동 176 TEL : 0394)34-8313</p>	<h3>삼보사</h3> <p>주 지 윤지원 신도회 회장 홍성걸 거사회 회장 박순배 연회회 회장 차정순</p> <p>신도일동</p> <p>■ 서울시 은평구 역촌1동 17-12 TEL : 02)352-6406 FAX : 02)389-3262</p>
---	---	---	--